

연말연시 맞아 서점마다 선물행사 꾸짐

전문 서점인이 권하는 '선물하기 좋은 책' 15종

지루한 비수기인 11월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서점 발길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 대형서점과 출판사들도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교보문고(대표 박환인)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매년 해오던 '연말연시 선물은 책으로' 행사를 마련한다. 이 행사 개최에 맞춰 '온가족이 함께 읽는 좋은책 180선'을 선정해 특설코너를 마련·판매하고 2만원 이상 구입시, 국내에 한해 포장 및 발송비를 부담한다.

종로서적(대표 이철지) 역시 12월 9일부터 '연말연시, 책으로 선물하세요' 행사를 열고 70여종을 전시·판매한다. 관련단체의 자문을 받아 선정할 연령별 추천도서목록을 마련해 제공하고 1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 포장 및 발송비를 부담한다. 영풍문고·시티문고·부산 영광도서 등도 연말연시 판촉행사를 준비중이다. 또한 을지서적(대표 방용남) 분당점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어린이들을 위해 12월 초순부터 3개월간 5층 이벤트홀에서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엄마와 함께하는 NIE 교실'과 '엄마와 함께하는 민화교실' 등을 개최한다.

시간을 발간하는 출판사들도 독자맞이에 분주하다. 동쪽나라는 법정의 《산에는 꽃이 피네》를 책과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함께 포장한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선물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이런 오디오북 계약단계인 출판사는 흥익출판사 등 몇군데 더 있다. 또한 두리가 황유석의 《마지막 해커》 출간기념으로 12월 31일까지 전국 각 서점에서 유니텔 무료가입권 및 1개월 무료이용권 증정과 티셔츠·음반 무료 배부등 판촉행사를, 우리문학사가 12월 12일 교보문고에서 박정근의 《큰오빠》 출간기념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진돗개 배구 1마리씩을 선물하는 '사랑의 대행사'를, 시공사가 12월 31일까지 카쿠치 히데유키의 《뱀파이어 헌터》 출간기념으로 캐릭터 공모 등을 통해 일본 왕복 항공권 2매 등을 시상하는 이벤트를, 소담이 《광수생각》 2권 출간 기념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10명을 선정, 3박4일간 일본 여행의 기회를 주는 행사를 여는 등 연말연시를 맞아 각 출판사별로 다양한 기획행사를 준비중이다. — 김연수 기자

책 선물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적은 액수로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에 책은 인성맞춤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서점을 찾는 독자들이 부쩍 늘었다. 6개 대형서점과 4개 전문서점의 담당자들이 서점을 찾는 독자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15종을 추천한다.

■ 일반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미치 앨봄 지음/세종서적)

루게릭병에 걸린 옛 스승에게서 학창시절처럼 화요일마다 들은 내용을 적은 책이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해 연말을 맞아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더불어 숲**》(신영복 지음/중앙M&B)

세계 각국을 돌아보고 쓴 수려한 산문집. 단순한 여행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낮은 땅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가며 오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도종환 지음/사계절)

고통을 나누는 일에 대해 들려주는 산문집이다. 연말연시의 떠들썩함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검은 사슴**》(한 강 지음/문학동네)

젊은 작가의 첫 장편소설. 햇빛 보기를 원하나 햇살 아래선 녹아버리고 마는 '검은 사슴', 겨울에 날린 연들이 떨어지는 '연꽃' 등 깊고 어두운 인간의 심연을 그렸다.

·《**대공황의 세계**》(찰스 킨들버거 지음/부키)

1929년 미국을 강타한 전대미문의 대공황에 대한 백서다. 할머니의 자본시장 공격 등을 생생하게 증언해 올 한 해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경제난을 되돌아보게 한다.

·《**집초는 없다**》(윤구병 지음/보리)

교수직을 내려놓고 변산으로 내려가 농사짓는 글쓴이의 생각모음이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도시인들에게 '진짜 그런가?'고 한번쯤 자문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

·《**무지개와 프리즘**》(이윤기 지음/생각의나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교양의 세계를 보여주는 산문집이다. 따뜻한 방안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내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봄날**》(임철우 지음/문학과지성사)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절절하게 묘사한 문학적 보고서다. 작가는 분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겨울 밤, 오래도록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혁명의 시대**》·《**자본의 시대**》·《**제국의 시대**》(에릭 홉스봄 지음/한길사)

1789년 이후, 형성된 근대세계가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설명하는 방대한 분량의 교양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울러 한 세기의 거시적 흐름을 읽는 노대가의 혜안을 만날 수 있다.

·《**당시읽기**》(오시카와 코오지로오·미요시 타즈지 지음/창작과비평사)

동양고전의 꽃인 두보·이백·양유 등의 당시를 해설. 입으로 응얼거리면 좋은 향을 낼 듯한 시와 해설을 담아 낯선 한시의 광활한 세계를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다.

■ 어린이

·《**시루스박사**》(크리스티안 뉘센·카르멘 마루아 지음/비룡소)

어린이들이 흔히 가지는 360가지의 궁금증을 밝힌 책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12권으로 제작된 백과사전이라 선물용으로 구색도 갖춰지고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다.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권윤덕 지음/재미미주)

아이들의 추억이 함께 묻어있는 옷에 관한 그림책이다. 월별로 다양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옷과 사물들이 정겹게 묘사됐다.

·《**동화는 내친구**》 시리즈(필리파 피어



스 외/논장)

《다람쥐와 마법의 반지》를 포함해 모두 5권의 현대동화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섬세하고 재치있는 삽화와 저학년에게 걸맞은 분량 등이 특징이다.

·《**사물놀이**》(김동원 지음/길벗어린이)

3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뽕과리·징·장고·북의 맛을 소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책이다. 소리가 보이는 그림책을 기획의도로 잡았기 때문에 사물놀이 연주를 담은 CD도 같이 묶었다.

·《**도서관**》(사라 스투어트 지음/시공주니어)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가르칠 수 있는 동화책이다. 넓게 볼 수 있는 큰 판형과 짧은 분량에 서스펜스, 웃음, 교훈이 들어 있어 책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선물하기 좋다.

추천해 주신 분

김경두(오늘의책)·김교섭(영광도서)·김동운(그날이오면)·김세태(종로서적)·김형순(교보문고)·박아영(시티문고)·신경숙(초방)·오윤지(을지서적)·정병규(동화나라)·황은주(대구서적)